



■ 페루, 쿠스코 근처에서 고대 유적 발견

잉카제국의 수도 쿠스코가 내려다보이는 삭사와망 성벽에서 고대 신전, 도로, 관개시설 등 새로운 유적이 발견됐다. 고고학자들은 삭사와망 성벽 옆에서 발견된 신전은 이 유적지가 군사적 목적 뿐 아니라 종교적 목적으로 건축되었다는



페루 고대 유적 발굴 현장

증거로, 잉카제국 이전의 페루 문화 연구에 새로운 빛을 던져준다고 말했다. 아직 방사선탄소연대측정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발굴된 도자기류와 건축 양식으로 추정할 때 이 유적은 잉카인들이 쿠스코에 도착하기 전인 서기 9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이 지역에 정착한 킬케인의 유적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전 페루국립문화원 원장이자 쿠스코 잉카 이전 문화 전문가인 루이스 림브레라스는 이전의 방사선탄소연대측정 측정 결과를 통해 이미 삭사와망 성벽은 1,100년대에 킬케인이 건설한 것임이 증명된 바 있다고 말했다. 잉카인은 킬케인이 건설한 도로 및 관개시설을 확장했을 뿐이라고 고고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2007년 6월에 쿠스코 국립문화원의 주도 하에 시작된 발굴 작업은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CNN World》 (2008. 3. 14.)

■ 아이티, 식량난으로 사회혼란 가중

아이티 남부의 레카이 지역에서 식량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물리적 충돌로 번지면서 최소한 3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시위 도중 10여명이 대열에서 이탈해 도로를 봉쇄하고 상점을 약탈하던 과정에서 빚어진 불상사이다.

유엔은 아이티 유엔평화유지군이 시위참가자들의 발포에 대응하여 총격을 가했다고 인정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사망했다. 소피 부토 유엔 대변인은 사건의 진상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라디오방송에서는 레카이의 다른 지역에서 2명이 추가적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는데 부토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밝혔다. 유엔은 시위에 대비해 레카이와 고나이브에 지원군을 파견한 바 있다.

아이티 정부는 지원받은 식량을 분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인당 소득이 하루 2달러 미만인 아이티는 국제 식량 가격 상승 때문에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 최근에 발생한 홍수와 이에 따른 토양 침식으로 인해 식량과 기초생활품의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효과적으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삶은 더욱 곤궁해졌다. 《BBC Mundo》(2008. 4. 5.)



아이티 남부의 레카이(Les Cayes)에서 시위로 가옥이 불타고 있다.

■ 아르헨티나, 농민 파업 일시 중단

아르헨티나 농민들은 ‘진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콩과 해바라기 수출에 대한 수출세 인상에 반대해 지난 21일 동안 계속된 파업을 앞으로 한 달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콩과 해바라기를 수출하는 농민에게서 원천 징수하는 세금을 35%에서 44%로 인상하려 한 바 있다. 정부는 국제시



아르헨티나 팔레과이추(Gualeguaychu)에 모인 파업 농민들 (2008년 4월 2일)

장에서 이 두 곡물의 가격 상승으로 생긴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업으로 도로가 봉쇄되고 농산물 유통이 중단됨으로써 육류, 우유, 과일, 채소 등이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동쪽에 위치한 팔레과이추 시에 모인 농민 지도자들은, 이번 파업 참가자들을 1976년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를 지원한 기업가들과 비교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자신들은 총이 아닌 농기구를 들고 싸우고 있으며, 120억 달러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는 중앙 정부가 오히려 연방주의를 훼손하는 쿠데타 주동자라고 역공했다. 농민 지도자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 달 뒤에 다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BBC Mundo》 (2008. 4. 3.)

■ 볼리비아, 문맹 퇴치 50만 명 성공

볼리비아 문화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맹퇴치사업 ‘나도 할 수 있다’(Yo, sí puedo)로 501,295명의 볼리비아인이 문맹에서 탈출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했다. 이 사업은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지원을 받아 볼리비아 문화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문맹퇴치사업 ‘나도 할 수 있다’의 교육 현장

지 문맹의 76%에 해당하는 626,919명이 교육과정에 등록했고, 전국에 걸쳐 목표의 79%에 해당하는 지역에 문맹퇴치 시설이 건립되었다. 137개의 자치시(municipio)가 ‘문맹 없는 지역’이라고 선포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자치시가 늘어날 전망이다.

2007년 3월부터 케추아어 및 아이마라어 문맹퇴치사업이 시작되었고, 각각 13,482명과 22,228명이 등록해 10,107명과 7,824명이 과정을 이수했다. 정부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의 교육활성화를 위해 전국에 3,366개의 태양집열판을 설치했다.

또한 2007년 10월부터는 쿠바 안과 의료진이 교육사업에 참여한 일반인들 251,825명을 진료하여 시력이 나쁜 212,078명에게 안경을 제공했다. 이 사업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볼리비아는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이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세 번째로 문맹을 퇴치한 국가가 된다. 현재 니카라과 또한 문맹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Telesur》 (2008. 4. 4.)

■ 칠레, 보건소에서 사후 피임약 배포 금지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결정에 항의 시위하는 산티아고 시민들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한 복지부령인 ‘피임에 관한 국민규약’을 문제 삼았다.

헌법재판소는 표결(찬성 5, 반대 4)로 사후 피임약 배포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자궁 내 피임기구 배포나 미성년자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준수 등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피임 규약 내용 중 다른 피임 시스템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으며, 피임기구의 상업적 유통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칠레대학교 산부인과센터 라미로 몰리나 박사는 이번 위헌결정을 “이상한 조치”라고 평하며, 보건소에서 사후 피임약을 배포하는 것은 불법인데 일반 약국에서 이를 구입하는 건 적법하다는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칠레 정부는 대변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여성들이 피임약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장관 솔레다드 바리아는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이 “평등에 대

칠레 헌법재판소는 우파 연합 ‘칠레를 위한 동맹’ 소속 하원의원 36인이 2007년 초에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야당 의원들은 특히 부모의 동의 없이도 14세 이하 청소년이 보건소에서 사후 피임약을 배급받을 수

한 쿠데타”라고 말했다. ‘피임옹호운동’은 피임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판결이라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BBC Mundo》(2008. 4. 5.)

■ 차베스 대통령, 베네수엘라 석유화학 혁명 추진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2012년까지 200억 달러를 투자해 석유화학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석유 중 2%만이 석유관련 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이내에 베네수엘라를 라틴아메리카 주요 비료 생산국이자 플라스틱 및 합성고분자 제품 최대 생산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에서 연설하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또 이 사업으로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차베스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베네수엘라볼리바르대학교 졸업생 및 미션수크레에 따라 대학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차베스 대통령은 52개의 개혁 프로젝트와 36개의 자원개발 계획이 추진되면 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 지역이 발전할 것이며, 이로써 국가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Alba》(2008. 4. 1.)

■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베탄쿠르 석방 요구 거절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의 총사령관 헤수스 산트리치와 외무장관 로드리고 그란다는, 혁명군의 석방과 인도적인 '포로' 교환의 조건으로, 2002년부터 '포로'로 잡혀 있는 잉그리드 베탄쿠르 전 대통령 후보를 우선적으로 풀어달라는 콜롬비아 정부의 일방적인 요청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프랑스와 콜롬비아 정부가 FARC의 동의 없이 프랑스-콜롬비아 이중국적 소유자인 베탄쿠르를 위한 의료사절단 파견을 앞당기려는 순간에 나온 발언이다.



2007년 11월 30일 언론에 공개된 잉그리드 베탄쿠르(Ingrid Bentacourt) 사진

지난 1월과 2월에 FARC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중재로,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베탄쿠르의 러닝메이트였던 클라라 로하스를 비롯해 몇 명의 '포로'를 풀어준 바 있다. 산트리치와 그란다는 이제 콜롬비아 정부가 혁명군을 석방할 차례이며, 감옥에 있는 혁명군들, 특히 미국에 송환된 시몬 트리니다드, 소니아 등이 자신들의 포로보다 더 참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톡홀름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FARC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전하고 있는 통신사 안콜(ANNCOL)은 베탄쿠르 협상의 유일한 중개자이자 FARC 서열 2위 라울 레예스가 지난 3월 1일 에콰도르에서 피살됨으로써 협상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및 콜롬비아 정부의 의료사절단 파견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Telesur》 (2008. 4. 3.)

■ 칠레 시인 카르멘 베렌게르, 파블로 네루다 상 수상



파블로 네루다 상을 수상한 카르멘 베렌게르

칠레의 시인 카르멘 베렌게르(Carmen Berenguer, 1946년생)가 파블로 네루다 상의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칠레 정부가 제정한 이 상은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시인에게 수여하는데, 5회째를 맞아 처음으로 자국 출신의 시인이 수상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수상자는 호세 에밀리오 파체코(멕시코), 후안 헬만(아르헨티나), 카를로스 가스톤 베이(페루), 피나 가르시아 마루스(쿠바)였다.

파블로 네루다 상과 함께 3만 달러의 상금을 부상으로 받게 된 베렌게르는 그동안 사회의 불의와 언어의 문제에 천착해왔다고 밝히며, 시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신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베렌게르는 1983년에 영국 대처 정부에 단식투쟁으로 항의하다 사망한 아일랜드 공화국군(IRA) 병사 보비 샌즈와 칠레의 모든 정치범들에게 경의를 표한 시집, 『벽 안에서 죽어가는 보비 샌즈』를 출간한 이후 『세기의 흔적』(1986), 『조기(弔旗)를 올리고』(1988), 『삼베 피부』(1993), 『화장하고 태어난 너』(1999), 『위대한 시 창작』(2002), 『엄마, 마르크스』(2006) 등의 시집을 발표했으며, 1997년에는 구겐하임 기금을 받기도 했다. 《La Tercera》(2008. 3. 14.)

■ 사진으로 보는 라틴아메리카 뉴스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2월 26일 수도 아바나 혁명궁에서 로마 교황청 국무총리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가원수에 오른 후 처음으로 외국 사절을 맞은 라울 카스트로 의장은 바티칸과 쿠바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쿠바 언론에 교회 관련 소식을 더 많이 신겠다고 약속했다./아바나AP연합뉴스



4월 20일(현지시간) 실시된 파라과이 대선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주교’라는 별명을 가진 페르난도 루고(Fernando Lugo) 전 가톨릭 주교가 당선돼 우파 콜로라도당의 61년 장기 집권을 무너뜨렸다. AP통신은 21일 루고 후보가 41%의 득표율을 기록, 여당 콜로라도당의 여성 후보 블랑카 오벨라르(31%)와 중도 우파 전국윤리시민연합의 리노 오비에도 후보(22%)를 누르고 승리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